

광주 100세 어르신에게서 듣는 장수 비결

# 감사하고... 믿으며... 배워라



100세 이강일 할아버지

일제 때 싸래기 죽도 감사  
매일 세끼 먹는 지금은 '천당'  
자유가 있으니 뭐든 해보길

광주·전남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기준 740명(광주182명, 전남 558명)에 달한다. 광주시 남구는 2011년부터 14년째 100세 어르신들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9명이 장수축하금을 받았고, 111세 어르신이 최초로 '천세축하금'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총 9명이 장수축하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람의 수명 중 가장 뒷단계, 하늘이 내려준 나이라는 의미에서 '상수(上壽)'라고 불리는 100세를 맞은 광주 어르신들은 '건강비결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100세 이강일 할아버지  
이강일 할아버지는 지난 4월25일 100세 생일을 맞았다. 장남 내외가 준비한 잔치상을 받으며 "천당에 사는 기분"이라고 웃었다.

이 자리에는 김병내 광주남구청장을 비롯한 남구 직원들이 참석해 100세를 축하했다. 그는 장수의 비결을 "편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창의 농가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어린시절을 보냈다는 그는 "농사를 짓는 쪽쪽 일제가 빼앗아다니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쫓쫓 굶고 있으니 형수가 '싸래기 쌀'을 얻어와 죽을 쑤 먹었다. 짐승 먹이로나 쓰는 건데도 그때는 참 달고 맛났다"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103세 백삼봉 할아버지

가난에 울었던 젊은 날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버텨  
앞으로 남은 인생은 '보너스'

매일 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할아버지에게 지금은 '천당'이다.

"운이 좋았다"는 그는 "지금도 누가 뭐래도 자유가 있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주어진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힘든 일도 어느새 지날 것"이라고 젊은이들에게 당부했다.

◇103세 백삼봉 할아버지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교회의 목사이기도 한 백삼봉 할아버지는 오는 12월 103세 생일을 맞는다. 백 할아버지는 "이름이 백삼봉이니 103살까지 살 거라고 농담하곤 했는데 진짜 103세가 된다. 그 이후에도 살게 된다면 그런 보너스 같은 인생 아니겠나"며 웃었다.

그는 장수 비결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하려는 태도"를 꼽았다.

부친에게 받은 나락 한 섬을 장사 밀천 삼아 철물점을 시작한 그는 "6·25때 주변 가게들이 모두 망했다. 나는 철물점을 하고 있어 남들보다 더 망했다"고 농담하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난에도 미래엔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고 강하게 믿고 기도해라. 무슨 일이든 진심을 다해 계속하다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을 받을 거다"고 강조했다.



100세 앞둔 정병호 할아버지

머리와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  
몇 년 전 영광까지 도보 여행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책상'

◇100세 정병호 할아버지  
올해 100세를 맞는 정병호 할아버지는 광주시 남구 덕남마을 인근 산 속에서 살고 있다. 이날 취재진을 맞이하기 위해 땀방울이 집 앞 잡초를 모두 매놓았을 정도로 그는 정정했다. 40세 즈음 무등산 자락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60여년을 산 속에서 살고 있다. 한 여름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도 없지만 정 할아버지는 자연에 둘러싸인 보금자리가 건강의 터전이라고 말한다.

그의 방안에는 각종 책과 노트, 필기구로 가득했다. "필요한 게 있느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물음에 "책상"이라고 답할 정도로 배우고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 그는 "아직 학생이다. 혼자 살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했기 때문에 아직 치매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몸을 늘 움직인다는 정 할아버지는 몇 년 전 광주에서 영광까지 도보여행을 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정미소를 운영했던 부유한 그의 집안은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급격히 기울었다.

10대 이후 집안형편이 어려워 100세가 될 때까지 산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주변의 도움 덕에 아프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머리와 몸을 끊임없이 움직인 덕분에 오래 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모두가 타인의 도움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

## 지진 때문에...한빛원전 주민 공청회 연기

4.8규모의 부안지진 여파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인 주민공청회가 연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한빛원전 인근 5곳(무안·영광·함평·장성·부안·고창)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열기로 한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연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 공청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반대를 하고 있는 함평을 제외하고 고창(17일), 부안(18일), 무안(20일), 영광(21일), 장성(28일)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수원 지난 12일 한빛원전에서 42.6km 떨어진 부안군 남서쪽 4km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여파를 우려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이 농번기를 맞은 주민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것도 연기의 이유라고 한수원측은 설명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6월 설계수명(40년)만료를 앞두고 있고 한수원은 수명연장(10년 추가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민을 포함해 환경단체는 정부와 한수원의 노후원전 계속 운영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초안공람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은 전문용어 사용, 중대사고 대책 미포함, 신기술 미적용 등의 이유로 정부와 소송을 고려하기도 했다.

최근 함평지역민 1400여명은 전북 고창에서 예정된 첫 공청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한수원 본사까지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달 중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노인 학대 늘었다...가해자는 가족

광주 지난해 470건 신고...전년비 18.1% 늘어

광주 노인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노인학대 신고는 모두 470건으로 2022년(398건)보다 18.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29건이었으며 2022년(167건)보다 37.1% 많았다.

2021년 의심 신고 457건, 학대 판정 219건을 기록한 뒤 2022년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친족이 196건(8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타인 21건(9.2%), 기관 10건(4.4%) 등이다.

발생 장소도 가정이 204건(89.1%)이었으며 공공장소 11건(4.8%), 복지시설 6건(2.6%), 요양

병원 5건(2.2%) 등이다.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수행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돌봄에 더 힘쓰겠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영장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 등 8명이 광주시장상,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최한 노인 인식 개선 사진 공모전 입상자 10명이 상을 받았다.

유엔(UN)과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지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월출산서 국내 미기록종 월출흰털이끼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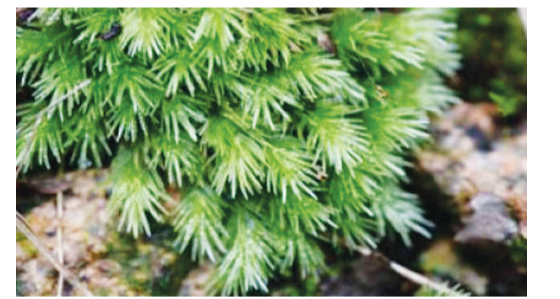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월출흰털이끼(사진)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13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연구원이 발표한 '2023 월출산 국립공원 공민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월출흰털이끼가 천황사지구 바람골계곡 바위에서 확인됐다.

월출흰털이끼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새롭게 부여한 명칭으로, 흰털이끼과의 한 종류이고 월출산에서 발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월출흰털이끼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드물게 분포하는 선대식물(이끼 식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국립공원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선대식물 조사를 했다.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1988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



된 선대식물에 대한 조사다.

국립공원 연구원은 "월출흰털이끼는 물론 산호 우산대이끼, 물결계발이끼, 계곡목결이끼, 세모귀이끼, 큰비룡수풀이끼 등 6종에 대한 생육지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